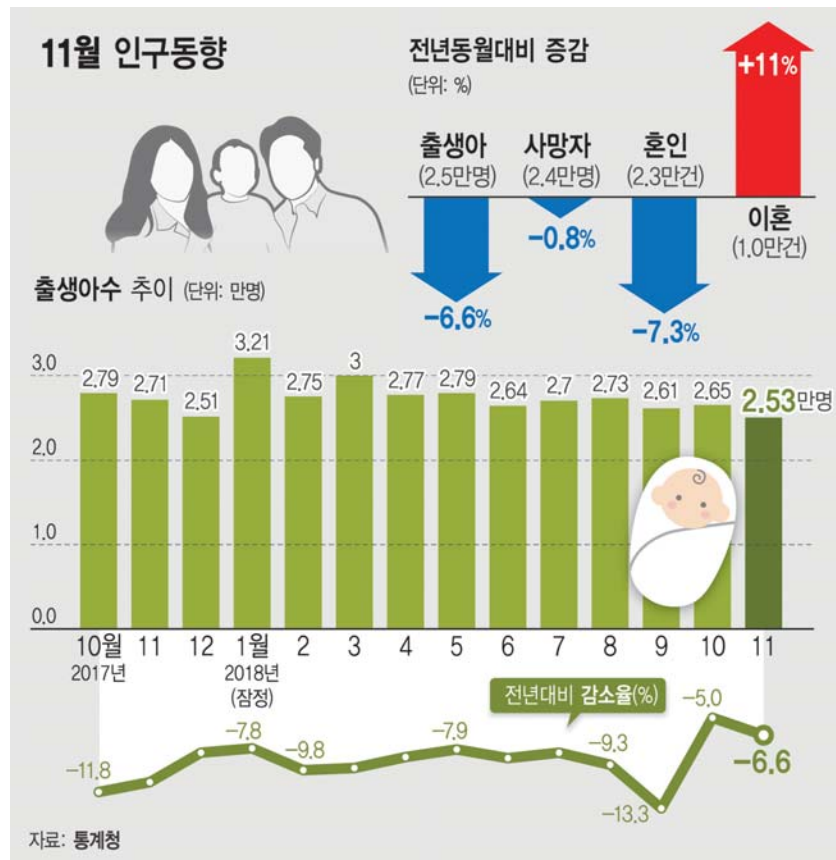


작년 11월 출생 2만5300명 '32개월째' 전년비 감소 중

통계청 '2018년 11월 인구 동향' 발표... 올해도 연간 30만명대 유지 전망



2018년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6% 감소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3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8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0명(6.6%)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적은 상황이 2016년 4월 이래로 2018년 11월까지 3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 탓에 월별 변동성이 크므로 같은 달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본다.

2018년 1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시·도가 비슷했거나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30만39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3만2600명보다 2만8700명 줄었다. 2013년 43만6500명, 2014년 43만

5000명, 2015년 43만8400명, 2016년 40만6200명 등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8만7800명) 들어 30만명대에 진입했다. 1~11월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2018년에도 30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 수는 약간 감소했다. 2018년 11월 2만4200명을 기록, 전년 11월 2만4400명보다 200명 줄었다. 다만 2018년 1~11월까지의 사망자 수는 27만2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만8700명보다 늘었다.

연간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6만6300명, 2014년 26만7700명, 2015년 27만5900명, 2016년 28만800명, 2017년 28만5500명 등이다.

혼인 건수는 2만28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800건(7.3%) 줄었다. 이혼 건수는 1만100건으로 1000건(11.0%) 증가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 수가 작년 11월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 수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스

설 일주일 앞둔 광주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

일부 상인들 "설날 대목 없어졌다" 한숨도



설을 일주일 앞둔 30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명절 대목이라 손님이 늘었는데, 손주들 용돈 줄라든 이번 주말까지 많이 팔아야제."

설을 일주일 앞둔 30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제수용품 구입하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시민들은 가게를 훑어다녀며 차례상에 올릴 물건을 꼼꼼히 살폈다.

"값싸고 맛좋은 낙지·병어 사

세요" "맛있는 동그랑땡 좀 잡주세요" "엄니, 찹쌀 김부각 장하게 맛있게요. 2개 사든 7000원" 손님의 이목을 끌기 위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심 좀 써요" "저도 먹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손님들과 능청스럽게 맞장구 치는 상인들의 모습은 전통시장만의 재미를 느끼게 했다.

특히 수산물시장 쪽이 분주했다. 상인들은 각종 수산물을 유기거나 손질하기 바빴다.

수산물시장에서 39년째 낙지를 팔고 있는 이모(65·여)씨는 "설을 앞두고 평소보다 매출이 3배 가량 올랐다. 이번 주말까지 손님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8년째 흥어 판매점을 운영 중인 김모(61·여)씨는 "이번 주에는 매출이 오르는 추세다. 단골들을 잘 챙기는 점포들은 대목이 반갑다. 하지만 평소엔 손님이 너무 없다"고 전했다.

비교적 시끌벅적한 수산물 시장과 달리 점포 68곳이 모여 있는 건어물 시장은 한산했다. 수확량이 적어 값이 대폭 오른 과일가게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건어물·과일 가게 상인들은 평소보다 손님이 늘었지만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 명절 대목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건어물 가게 주인 박모(62·여)씨는 "간혹 밤이나 대추 정도 구입해간다. 설이라고 더 잘되는 건 없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가게 임대료 내기도 벅차며 한숨을 쉬었다.

시장에서 30년가량 닭발을 팔고 있는 김모(69·여)씨는 "온가족이 모이는 명절의 의미가 사라지고 제사·차례 문화도 간소화되는 추세인 만큼 대목을 느끼기 어렵다. 5년 전부터 먹고살기 참 팍팍하다"고 했다.

올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은?..반도체 '증가' vs 섬유 '감소'

올해 상반기 주요 10대 업종 가운데 반도체업종의 일자리는 증가하겠지만 섬유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조선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8월 저점을 찍고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업종의 고용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3%(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부족 완화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성장은 부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섬유업종의 고용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4%(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철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베트남 터키 등 주요 의류생산지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해외의 소싱 확대, 국내 생산기반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은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이한 분야는 조선업종의 일자리다. 올해 상반기 소폭(0.2%) 증가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신

중국 금융불안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하지만 전년 대비 선박 발주량이 증가해 국내 조선업종의 선박수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종 고용규모는 지난해 8월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라며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 줄어든' 위조지폐, 작년 605장 발견...20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견한 위조지폐가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되거나 한은에 신고가 들어온 은행권 위조지폐 장수는 모두 605장으로

지난 2017년 수준(1657장)보다 1052장(6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1998년(365장)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은행권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도 0.12장으로 1년 전 0.3장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0.06장)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영구(129.1장), 멕시코(66.8장), 유로존(34장) 등에서 위폐가 많이 발견됐다.

위폐 발견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시중에 위조지폐를 대량 유통했던

위폐범이 잇달아 검거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2004년~2018년까지 5000원 짜리 구권을 위조한 범인이 지난 2013년 6월 검거됐다. 해당 기간 발견된 5000원짜리 위폐 수만 5만4000장에 달했다. 2016년~2018년중 위조된 1만원권 신권 1301장을 유통시킨 범인도 지난 2017년 9월 붙잡혔다.

때문에 1만원짜리 위폐는 크게 감소했다. 1년 전 1216장에 달했던 1만원권 위폐 발견 장수는 지난해 271장으로 94.5%(77.7%) 줄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